

퀄컴, 샤프 3대 주주로 부상

6월 59억엔 추가 출자로 ... 삼성전자는 6대 주주로 밀려

미국 퀄컴(Qualcomm)이 일본 샤프(Sharp)의 3대 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삼성전자의 지분순위는 6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.

샤프는 6월7일 퀄컴이 6월24일까지 약 59억엔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. 퀄컴의 샤프 지분은 2.56%에서 3.53%로 올라가 3대 주주로 부상하고, 삼성전자는 5위(3.04%)에서 6위(3.01%)로 밀린다.

퀄컴의 출자액은 2012년 12월 49억엔을 포함해 108억엔으로 늘어나며, 삼성전자의 출자액은 103억8000만엔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.

퀄컴은 3월29일까지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했으나 <MEMS 디스플레이>라는 전력 소비량이 적은 신형패널의 공동개발이 지체됐다는 이유로 출자를 미루었다.

하지만, MEMS 디스플레이의 시제품이 완성되자 추가 출자를하기로 결정했으며, 샤프는 2014년 말까지 약 85억엔을 투자해 Yonago 공장에 MEMS 디스플레이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다.

샤프는 2년 연속 거액의 적자를 기록해 3월 말 현재 자기자본 비율이 6.0%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퀄컴의 추가 출자 후에도 추가 투자자를 찾아야하는 상황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6/10>